

장성 'K-푸드', 美시장 진출...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

지역 기업 냉동김밥·매실김치...330만 달러 수출 협약 김한중 군수 "맛의 고장 전남도 손잡고 적극 지원" 약속

장성군이 미국 순방에서 330만 달러(46억원) 규모의 'K-푸드' 수출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인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8일 동안 진행된 미국 순방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장성지역 식품기업인 윤미숙 ㈜현대푸드시스템 대표, 김경광 올바름 대표, 김의병 새벽팍김치 대표가 동행했다.

이들 순방대는 ▲뉴욕 한국문화원 전남남원 준공식 ▲북미 최대규모 한인마트 'H-마트' 전남산 농특산식품 판촉행사 ▲뉴저지 '한복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장성 먹거리를

알렸다.

판촉행사의 성과는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새벽팍이 '하이리 마케팅' 본사와 30만 달러(약 4억원) 규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한남체인 플리튼점은 장성군과 300만 달러(약 42억) 규모 농특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순방 이후에도 계약 소식이 계속됐다. 올바름 쌀과자가 로스앤젤레스 유통점에 약 1천만원 가량 수출했으며, ㈜현대푸드시스템은 4천만원 상당의 냉동김밥과 잡채를 뉴욕에 수출할 예정이다.

2013년 창립한 ㈜현대푸드시스템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냉동식품 수출 역량을 갖춘 즉석식품 제조업체다. 전국 1만 여개 매장에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장성지역식품기업 새벽팍이 지난달 29일 미국 순방 중 하이리 마케팅 본사와 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또한 올해 '전남도 냉동김밥 생산 및 상품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뛰어들었다. 수출길에 오른 냉동김밥은 '슈퍼푸드'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산 김과 장성쌀로 만들었다.

유아용 쌀과자를 생산하는 기업 올바

름은 '독도 쌀과자'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다. 2021년부터 포장지 뒷면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문구와 사진을 넣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 바이어로부터 독도

최근 일본 수출 바이어로부터 독도

최근 일본 수출 바이어로부터 독도

문구를 없애는 조건으로 연매출 15%에 달하는 계약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일화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해썬(HACCP) 인증을 받았으며 화학첨가물 없이 원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낸다.

새벽팍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 지난해 열린 제12회 대한민국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표 메뉴인 '참매실 새벽김치'는 매실 원액과 과일즙을 더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장성군이 배추김치 양념숙달기 설비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해의 환경을 자랑하는 '성장 장성'의 안심 먹거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맛의 고장 전남도와 손잡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여순광행정協,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힘 모은다

조직위와 MOU...관객객 유치 협력·홍보 지원 등 적극 지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12일 "지난 11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열린 여순광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직위와 협의회 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여수에서 열린 2024년 여순광행정협의회 정기회의 행사에 맞춰 체결됐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홍보영상 상영, 협약체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섬박람회 성공을 위한 관객객 유치 협력, 박람회 홍보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고 조직위는 협의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순천·광양시에서 힘을 모아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섬박람회가 섬 생태문화를 보존하고 섬의 미래가치를 확산시키며, 공동번영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앞으로도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내외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두 달

간 돌산 진모지구(주 행사장)와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금오도, 개도(부 행사장) 등에서 개최된다.

주 행사장에서는 섬 관련 주제관, 생태문화관, 미래관 등이 전시되고 다양한 세계 섬 문화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 행사장에서는 해상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이 계획돼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섬 세계로의 안내가 기대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 순천, 광양시 협의체인 여순광행정협의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왼쪽부터)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여수시 제공〉

담양군, 새내기 공직자 역량 강화 워크숍

기획 실무·청렴·대민친절 의식 등 교육...이병노 군수 특강도

담양군은 "최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신규자 및 7년 이하 공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새내기공직자 온보딩(onboarding) 희망엔진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무 역량 강화 기획 실무 특강, 대민친절 의식 함양 교육 및 조직소통의 기술과 전략 등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 첫날에는 담양군 행정국장이

후배 공직자를 위해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등을 교육했으며, '공직자의 신념과 소명 의식으로 만드는 담양군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 강사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이병노 담양군수가 교육장을 방문해 새내기 공직자들을 격려했으며,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교육생들에게 호응을 얻었

다. 둘째 날에는 친절 및 민원 시 필요한 대처 능력 위주의 전문 강사 교육을 시작으로 조직 구성원 간 올바른 소통에 대한 교육과 완도군의 특성화사업 해양치유센터 선진지 견학 및 체험 등으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병노 군수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만큼 역량은 커지고 그로 인해 담양군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혼자 걷는 백 걸음보다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제18회 농업인대학 졸업식 성료

친환경 농업·청년CEO 등 3개과정 운영...85명 졸업생 배출

장흥군은 12일 "지난 11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제18회 장흥군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장흥군은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 과정과 농업아카데미 청년CEO, 블루베리전문가과정 등 3개 과정을 3월

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과정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85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공로가 많은 친환경농업과정 김재기 회장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우수 졸업생 6명에게 농업인대학장인 장흥군수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성 군수는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 선도농업인으로서 장흥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농업인대학은 선도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 생약초과정을 시작으로 2024년 제18회까지 총 1천3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장흥군은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장흥=노형록기자

순천 신대도서관, 道공공도서관 평가서 '최우수'

개관 1년여 36만명 방문...시설 혁신·지역 유대활동 등 높은 평가

순천시는 "최근 신대도서관(사진)이 '2024년 전남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에서 주관한 것으로 도내 4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번째 기관평가다.

평가 결과, 신대도서관을 포함한 4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평가는 예산, 장소,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등 7개 항목과 12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정량 평가와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신대도서관은 공간 및 시설 혁신, 관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활동, 전년대비 도서대출 증가 및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월 개관 이후 36만명이 다녀갔으며 잔디광장, 책마루, 메이커스페이스 등 신개념 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장선 직원들과 100여명의 자원활동가 그리고 지역민의 호응으로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책과 더불어 지역 안에서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는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신대도서관과 어울림도서관의 개관을 통해 도서관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책 읽고 공부하는 도서관의 틀을 깨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공간혁신을 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정기기자

구북규 화순군수 "고향사랑기부 관심·참여 확산"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다음 주자 고평군수 지명

화순군은 "최근 구북규 화순군수가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에 동참(사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명된 참가자가 기부 소감과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매결연 도시인 구인도 거창군수로부터 지목받은 구북규 군수는 경북 고평군, 경남 거창군, 장흥군, 서울 양천구, 부산 사하구에 시·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 내역을 인증했다. 다음 주자로 우호 교류 도시인 이남철 고평군수를 지명했다.

구북규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함께하는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고향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산하길 바라며, 많은 이들이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기회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화순=이병철기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곡성군, 역학조사·방제대책 수립

곡성군은 12일 "곡성읍 죽동리와 연결한 교촌리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동 대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7구가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에 따라 발생 현장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도, 인근 시군과 함께 긴급 중앙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 방제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 조사반은 재선충병의 감염 시기, 원인, 확산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현장 조사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내부에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특성이 있다. 곡성군은 예비비를 투입, 즉시 고사목 방제를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김영필기자